
2022

Porter Prize Excellence in CSV

제9회 CSV·ESG 포터상 우수기업 사례집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학연 집적화를 통한 국내 유일의 식품 전문 산업단지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미래유망식품산업 개발,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을 지원합니다.

Background(배경)

국제적으로 UN-SDGs의 제시에 따라 국내에서도 민간과 공공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정부의 ESG 관련 정책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른 공공기관 차원의 제도적 이행, 자체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전략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22년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ESG경영 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전략과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했다. 올해는 도입·보완기로 중장기 전략과 함께 ESG 내재화 및 지원 분야 확대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Top-Down 방식의 ESG경영을 실행, ESG 경영 현황 진단 및 개선목표 수립,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을 22년의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Activities

1) 환경: 폐기물 및 탄소저감을 위해 친환경 포장 기술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국내 유일 식품 포장 관련 연구시설을 보유하여 관련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용기의 구조변경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고 친환경 라벨 개발 등 식품 친환경 패키지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체육 개발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미래유망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식물성 조직단백 제조 기술을 이용한 대체육 개발로 탄소를 절감하고 있다. 22년 8월 26일에는 대체육 가공기술 품질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기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태양광(PV)설치, 친환경 녹색건축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하고 있다.

2) 클러스터 내 동반성장: 또한 클러스터에서는 식품산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비 규모 199,658백만원(건축: 143,260, 장비: 56,398)의 12대 특화 기업지원시설을 구축하여 영세 식품기업을 위한 원스탑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클러스터를 통해 식품산업단지 내 기업간 자발적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상생형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코아바이오, 풀무원과 같은 기업들이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인증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했으며, 일자리 매칭 지원사업 운영으로 우수한 인력이 기업에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는 '상식적 일자리 매칭 지원체계'를 가동하였다. 또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2022 K-농산어촌 한마당을 유치하고 바이어 초청 B2B 상담회와 연계하여 푸드마켓의 입주기업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가공분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상생장터 연계 협력을 통한 푸드플리마켓 기획전 및 TV홈쇼핑 사업으로 사회공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친환경포장기술 지원, 지역상생과 동반성장, 윤리경영 추진 ESG 경영 확산 노력 지속



Process

ESG 경영 추진을 위해 정책수립지원 및 사업계획 자문 검토기구인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 전담부서인 기획홍보부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등 기관 전사적 ESG 전략 및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계획, 점검, 평가, 피드백 등 자문기구로서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참여혁신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환경(Environmental)분야에서는 식품산업 탄소중립 2050 선도, 사회(Social)분야는 식품산업 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으로 사회가치 실현, 지배구조(Governance)분야는 국민과 함께 공정·투명 경영을 3대 전략으로 규정하고 9 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성과관리와 확산을 위한 ESG 5 대 핵심분야별 내재화 수준진단(TOOL) 및 개선분야 발굴로 ESG 각 부문에 부합하는 추진과제를 자율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체계로 P.D.C.A 기반의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Performance(성과)

클러스터 내 기업들에 채용된 전북상생장터에서는 연계 협력으로 75개 제품 판촉 홍보를 추진, 12,610천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정규직은 98.4%로 연평균 고용률 매년 15%의 증가세에 있다.

자발적 성장이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매년 85% 성장 중이다. 클러스터 내의 평균고용인원은 24.6명으로 식품산업의 평균인 6.3명 보다 3~4배 높다. 클러스터 내 가공기업의 매출액은 평균52억원이며 국산 농산물 활용 비율은 96.5%로 식품제조업 평균 3배에 달한다.

Future(전망)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코로나19와 산업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정부 정책을 반영한 3가지 미래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창립 10주년에 따른 미래 비전을 정했다. 미래유망식품 산업 선도, 스마트 산단화,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이 그것이다. 제11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식품 산업 내 '친환경'의 동향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였으며, 식품 산학연 및 소비자 단체와 상호간 '탄소 중립 협약'을 체결했다. 중장기 추진 방향에서 23~24년을 확산·강화 시기로 규정하고 Bottom-Up 방식의 ESG경영 실행, ESG 경영 추진체계 고도화, 중장기 BP과제 발굴 및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25~26년은 정착안정기로 ESG경영 롤모델을 타 기관으로 확산하고 입주기업들과 공동의 ESG 목표를 수립 및 실행하며, 기업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다.